

코리아 아트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킹스톤 병원 돕기 기금 마련 ... 전통 국악과 오페라 갈라 콘서트 공연 무대 큰 박수

지난 4일 (일) 킹스톤 로즈 극장에서 7번째 코리아 아트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킹스톤 병원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원(임형수 원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재영 한인교와 시민 등 관객 400여 명과 오케스트라 연주자, 공연 참가자, 스태프 등 100명이 함께 풍성한 잔치를 벌였다.

전통 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진 1부에는 장구, 가야금, 대금 등 영국에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국악 연주와 매력적인 라인댄스, 우아한 전통춤과 화려한 부채춤 공연이 이어졌다.

1부 공연 후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킹스톤 시민과 한인들을 위해 애쓴 한인 간호사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와 박수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가졌다.

2부에는 템즈필하모니아(유병운 지휘)와 함께 평소 같고 닳은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런던한인합창단의 무대가 돋보였다.

이어진 유명 성악가들의 수준 높은 오페라 아리아 공연은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임 원장은 본지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내년에도

더욱 풍성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후원에도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2면) 편집부

런던한겨레학교 이사합니다

우리 학교가 2016년 1월에 뉴몰든 URC 교회 홀을 빌려서 문을 연지 6년반 만에, 초등학교 건물로 이전합니다.

2022년 9월부터 크라이스트 처치 스쿨 (Christ Church New Malden CoE Primary School, Elm Road, New Malden, KT3 3HN) 에서 새로 시작합니다.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여러 귀한 분들의 도움으로 가장 좋은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 학교에서는 현재 만 5세부터 16세까지 총 8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onekoreanschool.org)를 참조해주세요. 기사 제공 : 런던한겨레학교

본지 다음호 발행 9월 22일

윤유리, 영국 세법 이야기 영국서 사업 시작할 때 사업체 유형 » 22	독자투고 글로스터시 참전용사 기념행사 참관기 » 23	정갑식 뜨거운 영국의 여름나기 » 28	권석하, 두터운 유럽 연재 프랑스 몽펠리에 ① » 38	독자투고 옥스퍼드대 한국 전통놀이 행사 » 39
---	-------------------------------------	-----------------------------	--------------------------------------	----------------------------------

BH Accounting
**영국공인회계사
BHI 회계법인**
법인설립 | 법인 & 개인 세무신고
Payroll 서비스 | 컨설팅 | 구매대행 | 환영
Address: V307, Vox Studios, 1-45 Durham Street, Vauxhall, London, SE11 5JH
Phone: 07496048148 / +44(0)20 8176 0793
Email: admin@bh1accounting.co.uk

GREEN FARM
'푸른농원'
상표를
확인하세요!
떡, 콩나물 전문
☎ 07379 960 460 / 020 8417 1123

오랜 전통과 신뢰 SINCE 1988
원한의원
British Acupuncture Council
원장 김원규 **한약/침/보약/뜸**
MRCHM 한의사 MBACC 영국국가공인 침구사
020 8949 3888 / 07710 627 333
56 Cambridge Rd, New Malden KT3 3QL

ggm 지지엠
맛있는... 직접만든 순대, 순대국
☎ 020 8337 7999

Soldeli
Japanese Sushi and Fine Dining at Home
생선 횡감, 초밥용 수산물과 각종육류,
집앞까지 매일 배송. 영국 전역.
£70 이상 무료. 주 6일 배송.
참치, 방어, 연어, 일본 와규,
성게알, 일본술, 전복 등.
soldeli.co.uk

KIB보험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 브로커 Since 1992
자동차·집·회사·의료·상업보험 등
JEB Group : Lloyd's broker & FCA 등록
www.kib.co.uk
020 7847 8630/1 info@kib.co.uk
3rd Fl, 14 Austin Friars, London EC2N 2HE

워크비자/스폰서쉽
솔렙비자/사업비자
결혼비자/영주권/시민권
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영국이민센터
☎ 079 4450 5952
ukemin@hotmail.com / www.ukimin.com
카톡 ID : johnhsuh (문자 및 음성통화 상담가능)

대한보험 차·집·Shop
모든 상업보험
FCA 등록업체
On-Line 보험? 대한보험과 비교하십시오!
한국 무사고 경력 100% 인정
☎ 0208 715 0120
jinnydaehan@gmail.com
63 High St, New Malden KT3 4BT

C&C Express
국내·해외 이사·Delivery
안락 & 커머셜 (수출·수입)
07740 283 409
07833 671 027

트리스톤 정육점 & 정육식당
THE TREE STONE
착한 가격/도소매 더 다양하고 더 신선한
☎ 020 8942 5756
71 High St., New Malden (백도널드 옆)

홍대치킨
chicken
(14면 참조)

BLUEBIRD
-Residential-
☎ 020 8949 2424
info@bluebirdresidential.com
카카오톡 채널 검색아이디: ukbluebird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세관/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런던우체국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A3 MOTORZ
튜닝 / 타이밍벨트 / 오일교환
타이어 교환·핑크 / 전기문제
New Malden KT3 3NE
☎ 07540 142 017
기술자 염관식

정직하고 성실한
보라여행
항공권 & 여행 전문
☎ 020 8241 7987 / 8949 1279
07804 779 401
www.boratravel.com

범양 익스프레스
Pumex International
안락 당일 배송·포장·픽업
일반 특송·구매·배송 대행
☎ 07960 879 234 24시간 상담

범죄경력증명서, 가족/혼인/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학력증명서,
국제운전면허증, 기타 한국민원서류 <150여 개국>
(7면 참조)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발급 번역 공증 +82-2-747-2180
allminwon.com 외교부/대사관 인증 +1-312-448-6160

하나로 익스프레스
(전세계 특송 전문)
-항공/해상/창고보관/이사 -
☎ 020 8949 6923
07940 554 685
EU/UK 정식 수출·입면허 허가업체(EORI No. 보유)

영국비자센터
www.imin4u.com 영국정부등록번호 F201602020
**스폰서쉽/취업비자/영주권/
시민권/사업비자/
솔렙/배우자 비자/학생비자/
info@imin4u.com
020 3371 1033, 07886 665 921**

경제 위기에 파운드화 추락, 1985년 이후 최저

지난달만 4.6% 하락... 2016년 10월 이후 최악의 달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심각한 경제 상황 반영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1985년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영국의 고물가 등 심각한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투자자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팩트셋을 인용해 아시아 시장에서 파운드화가 1.1475달러를 기록해 198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파운드화는 지난달만 달러화 대비 가치가 4.6% 하락해 2016년 10월 이후 최악의 달을 기록하기도 했다.

파운드화 가치 추락에는 강달러뿐 아니라 영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WSJ는 진단했다.

영국은 올겨울 에너지 위기가 예고되고 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을 압박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수많은 가구가 난방비를 못 낼 처지에 놓였다.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며 물가는 치솟고 있다. 영국의 지난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0.1% 올랐다. 4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13%가 넘고 4분기부터는 경기침체에 접어들었다고 전망했다.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2024년까지 침체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물가 상승률이 22%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경우 영국 경제는 3.4% 위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기술적으로 경기침체로 정의된다.

BOE가 작년 말부터 금리인상을 시작했는데



도 파운드화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약 15% 떨어졌지만 수출 업체들은 환율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파운드화 가치가 내년 중반까지 1.05달러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37년 만에 최저치다.

노무라 인터내셔널은 내년 말 1.06달러 전망을 제시했다.

블루베리 자산운용의 마크 다우딩 최고투자책임자(CIO)도 영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파운드화 가치가 1달러당 1파운드를 의미하는 패리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파운드화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통화 중 하나였으나, 2016년 브렉시트 등 이슈로 타격을 입으며 지난 세기 동안 꾸준히 하락했다.

다우딩 CIO는 1976년 영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뉴시스

클릭 몇 번으로 범죄경력증명서(ACRO) 발급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 민원서류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 서비스로 해결

영국에 거주 중인 교민 최씨는 영국에서 모든 학업을 마치고 최근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런데 해당 기업이 영국 현지 범죄경력증명서(ACRO)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최씨는 "발급을 받으려면 직접 영국에 가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호소했다.

한국에 부모님을 만나러 무비자로 입국한 영국 시민권자 박씨도 마찬가지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장기체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재외동포의 경우 F4비자와 90일 이상 체류를 하기 위해선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박씨는 "F4비자 발급과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려면 영국 현지 범죄경력증명서(ACRO)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막막하다"라고 말했다.

각국의 범죄경력증명서는 유학, 취업, 외국인 비자 발급, 영주권 신청 등의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 중에 하나로 해외에 6개월 이상체류했다면 반드시 필요하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현지에서의 지문 날인 서류 작성 및 신청서 등을 완성해야 진행이 가능하며 나라마다 발급 방법이 상이하고 기간도 상당시간 소요된다.

또한,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외교부, 대사관 인증이라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전세계 많은 민원인들이 이 서류를 직접 준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에서는 국내는 물론 국내-해외, 해외-해외 해외-국내에 필요한 각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비대면)을 통해 클릭 몇 번만으로 발급부터 해외 배송까지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범죄경력증명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이민, 유학, 취업, 비자, 국제운전면허 등)에 요구되는 전세계 모든 민원 서류도 해당된다.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와 컴퓨터, 프린터가 없어도 발급이 가능하다. 심지어 원하는 장소로의 배송은 물론 고객의 이메일로도 받아 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현재 한국통합민원센터는 15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민원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미국 시카고 지사(quickquick.us) 설립을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캐나다 등 해외 지사 설립을 확대 추진하는 등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기사 및 사진 제공 :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제부터 부동산 관련 문제는 전문가에게! 불필요한 시간낭비 NO!!

단골고객이 많은 부동산

블루버드 레지덴셜입니다

- ✓ 영국 내 최고 오랜 부동산 관리 경험과 전문성
- ✓ 빠르고 친절한 대응
- ✓ 합리적인 비용
- ✓ 주택 렌트부터 관리, 매매까지 부동산 관련 원스톱 서비스!
- ✓ 무료 감정평가(Valuation) 및 Value UP!! 어드바이스
- ✓ 카카오톡 부동산 상담 서비스(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뉴몰든 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웨이트로즈 맞은편)



Bluebird Residential
020 8949 2424

info@bluebirdresidential.com www.bluebirdresidential.com
17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Y

TALK 카카오톡 상담 (검색아이디 relocation)

C&C Express Ltd.

THE PREMIER FREIGHT FORWARDERS

최고의 차별화된 글로벌 물류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편안한 이사가 되도록
씨엔씨 익스프레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해외이사
국내이사 및 DELIVERY

안틱 & 커머셜
(수출, 수입)



01483 322 505
07740 283 409
07833 671 027

WARE HOUSE : VALENTINE FARM (BARN A02),
ROSE LANE, RIPLEY, SURREY, GU23 6NE
OFFICE : NEW MALDEN
express@urcnc.com

글로스터시 참전용사 기념행사 참관기

참혹했던 설마리 전투! 그리고 Gloucester 대대의 Tommy Clough 옹 이야기

2022년 8월27일!

이날이 저의 영국생활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한번은 꼭 와봐야겠다고 생각한 글로스터Gloucester지역의 땅에 드디어 발을 디딘 날입니다. 날씨는 화창 하다못해 찬란하였으며 섭씨 25도, 코발트빛 파란하늘에 조금씩 보이는 먼하늘의 뭉개구름 몇 점, 쾌청한 바람.

오늘 킹스톤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재영한인 약 50여 명이 재향군인회 영국지회(장희관 회장)의 주최로 글로스터시를 찾은 것은 글로스터 군인 박물관 돕기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해 한국전쟁 참전에 감사하고 이 지역에 살았던 장병들의 희생과 피땀에 조그마한 감사를 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전에 참전하여 그 약명높은 설마리 전투에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빛나는 전공을 세웠던 부대는 바로 Gloucester 연대입니다. Gloucester 연대가 위치한 Gloucester시는, 바로 영국 잉글랜드 서북부지역, 관광지로 유명한 코츠월드 지역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는 인구 13만 명의 조그만 도시입니다. 런던에서는 차로 한 2시간여 정도 걸리는 곳이지요.

설마리 전투 이야기

당시 파병된 영국 군인들이 같은 동네 출신들을 한부대로 모아서 부대를 만들었다 하는데, Gloucester 연대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당시 수도방위 전선에서 중공군 30,000명을 맞아 절대열세였던 유엔군은 대부분 다 후퇴했지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란 곳에서 바로 영국 Gloucester연대가 마지막 서울 방어진으로 남게되어 최후까지 결사항전 함으로써, 동두천으로 통해서 서울에 입성하려는 중공군을 3일이나 저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서울 방비 시간을 벌게되어 결국 서울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6.25전쟁사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약 이 전투에서 3일간의 시간을 벌지 못하여 중공군이 서울을 다시 점령했다면, 당시 매우 포악하다는 중공군들이 미처 철수하지 못한 서울민들을 얼마나 약탈하고 겁탈하고 파괴하였겠는가. 또 서울이 또 다시 점령당한 상황에서 국민들과 연합군의 사

기저하로 한국전쟁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 되었을지는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황금의 72시간을 버텨낸 영국 제 29연대는 1951년 4월22일부터 4월 25일까지 버티다가 결국 퇴각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대본부는 Gloucester 대대 당시 인원 600여명을 중공군의 손아귀에 떨쳐놓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동 대대를 구출하기 위해 벨기에군, 필리핀군의 구출작전도 허사로 돌아가고, 고립무원에 있는 Gloucester대대원들은 결국 빨갱이 흩어져 탈출 아니면 죽음이 라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합니다.

당시 보급품도 바닥나고 통신 배터리까지 다 닳아 연결두절되곤 했다고 하는데, 당시 여단과의 의논도 없이 하달된 마지막 연대장의 명령 지시가 섬뜩합니다.

“최대한의 노력으로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여 연단에 합류하라.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여 저항을 계속하여도 소용이 없다면 투항하라. 이 양자 선택의 결정권은 귀관에게 위임한다. 글로스트 장병들의 행운과 성공을 빈다”

이 전투로 인하여, 대대원 652명중 대부분 전사 및 포로로 잡히게 되고 생존자는 단 67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때 Gloucester지방의 처녀들이



현재 Gloucester 대대원으로 유일하게 아직 살아계신 Tommy Clough 옹 (사진 가운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총각들이 너무 많이 전사함해서 시집 갈 상대를 못 찾아 곤란했다는 웃지 못할 일화도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설마리 지역에 가면 영국군에게 감사하기 위한 전적비도 세워져 있고, 과거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추모하였던 곳이며 영국인들도 관광으로 왔다가도 한 번씩 참배하는 곳입니다. 얼마전에 개장한 감악산(紺岳山) 출렁다리를 파주시는 “글로스터 영웅의 다리”라는 별칭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Gloucester 부대원 Tommy Clough 옹(翁)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한 장병들은 20세 이하의 어린 소년병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 당시 파견되었던 한 참전 소년병 용사의 회고담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당시 배를 탄 우리 800명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배를 탔다. 한국이라고 목적지는 들었으나, 한국을 아는 동료는 아무도 없었다. 중국과 일본이란 나라의 중간지역에 웬 전쟁이 나서, 미국을 도우러 간다고 들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군인으로서 처음 전투를 하러간다는 흥분



으로 오히려 좀 들떠 있었다” 고 했습니다.

이번 Gloucester 방문에서 만난 사람 중 한 분이, 바로 소년병으로 참전했던 Tommy Clough 옹입니다. 금년 92세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며 농담을 나눌 정도로 기력이 좋으십니다. 19세에 입대하여 한국전에 참전해서 설마리 전투를 몸으로 겪으시고, 결국 중공군 포로로 잡혀서 21살 생일을 포로생활에서 맞았다고 합니다. 현재 Gloucester 대대원으로 유일하게 아직 살아계신 분이시며 한국정부에서도 영웅으로 우대하며 본인도 한국국민들의 우대에 감사를 되뇌시는 분이십니다. 저로서는 이 분이 돌아가시기전에 오늘 행사에서 만나뵙고 사진 한장 찍은 것도 큰 선물인 셈입니다.

Gloucester 기념 행사

오늘 행사는 Gloucester 시에 있는 군인박물관 앞 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조그마한 무대에서 재영한인 노인회와 문예원 등 단체들의 주선으로 우리나라 전통 무용과 합창단의 공연이 약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색동저고리를 입고 춤추고 노래부르는 공연단의 모습에 Gloucester시 시민들과 행사 참여하신 영국분들의 많은 환호와 박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들 머리속에는 “고마움을 잊지않는 한국 국민”이라고 새길 듯합니다.

합창단이 “아리랑~”을 부를 때는 이역땅 영국에서 지방주민들을 모아 놓고 아리랑을 부르고 듣고 하는 것이 운명적인 듯하여, 저도 모르게 눈물이

뿜 돌았습니다. 광장 여기저기 놓여있는 나무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영국시민들이 우리나라 민요와 동요음악을 신기한 듯 열심히 감상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뽕짝~뽕짝”하는 우리나라 대중가요와 요즘 뜨고 있는 BTS노래도 좀 넣으면 더 좋을 듯한데, 합창단에 속해 있는 나이드신 할머니들이 감당하실지는 좀 걱정입니다.

금년 글로스터 시 방문행사는 재영 재향군인회 측에서 주선하여 리무진 버스도 동원해 주고 맛있는 점심 도시락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행사 주관하신 재향군인회 장희관 회장님, 행사공연에 수고하신 문예원 임선화 회장님 그리고 재영 노인회 권오덕 회장님, 합창단 지휘해주신 분, 무용 및 합창공연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 특히나 왕복 4시간 동안 버스안에서 참석자 모두 배꼽이 빠질 정도의 폭소를 자아내게 만들어주신 사회자 염태호님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설마리 전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참전해주신 글로스터 장병들, 대한민국을 지켜주어서 감사합니다!

영국, 당신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해주신 은인나라입니다!

70여 년 전 이러한 상처를 딛고 다시 우뚝 일어서는 우리 대한민국, 참 자랑스럽습니다!



글쓴이: 조동식
옥타던지회 이사장
dscho273@gmail.com

영국, 중공군 남하 맞서 설마리전투서 활약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육군 파병... 영연방국가 참전 이끌어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6.25전쟁에 육군을 파병한 국가 '영국'.

영국은 1951년 1월4일 중공군의 공세로 유엔군이 서울 이남 지역으로 철수한 1.4후퇴 이후 임진강변 설마리 일대에서 발생한 설마리 전투에서 크게 활약했다.

당시 유엔군과 중공군은 38선을 경계로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1951년 4월22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의 설마리에서는 영국군 글로스터 대대와 중공군의 전투가 벌어졌다. 설마리는 동쪽의 감악산과 서쪽

의 파평산 일대를 감시할 수 있고 위쪽으로는 5km 떨어진 지점에 임진강이 위치해 있어 전술적으로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이에 남하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던 중공군은 22일 공격을 시작했고 수적 열세 속에서 글로스터 대대는 23일 설마리 고지에서 철수했으며 24일 새벽에는 중공군에게 포위당하는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글로스터 대대는 방어지를 구축하고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24일 방어진지에서 12시간 이상을 버티던 글로스터 대대는 중

공군에 맞서 백병전을 벌이며 고지를 사수했다.

설마리 전투에서 글로스터 대대는 850여명의 대대원 중 장교 21명과 사병 509명이 포로가 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중공군 주력을 상대하면서 미 제1군단 주력부대가 안전하게 철수해 서울방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설마리 전투는 6.25전쟁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고립방어전투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설마리 전투에서 전쟁 포로가 된 글로스터 대대장 칸 중령은 혹독한 생활을 신앙의 힘으로 버텨냈다고 한다. 포로생활 중 그가 깎은 십자석 복제품과 군복 등은 글로스터 군인 박물관의 기증으로 현재 부산 남구

유엔평화기념관이 보관하고 있다.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발생하고 얼마 뒤 유엔본부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한국에 군사지원을 제안했고, 영국은 즉석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6월29일 영국 해군은 경 항공모함 1척, 순양함 2척, 구축함 2척, 프리깃함 3척을 편성해 한국해역으로 보냈다. 이런 빠른 조치는 영연방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파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같은해 8월28일 영국의 보병대대가 부산항에 상륙했고 영국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한국에 육군을 파병한 국가가 됐다. 파병 규모도 미국 다음으로 크다. 1951년 7월에는 영국군을 중심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

나다 등 영연방국가들이 포진된 '영연방 제1사단'을 창설하게 된다.

이는 영연방국가들이 비슷한 군사작전상 절차와 지휘체계를 거치고 탄약 등 보급체계가 영국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하나의 사단에 여러나라의 부대로 결성된 전사상 유례없는 부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영국은 6.25전쟁 초기부터 모든 병력이 철수할 때까지 5만6000명을 한국에 파병했다. 이들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후크고지 전투까지 수많은 작전과 전투에 참여했으며 1078명이 전사하고 276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889명의 영국군이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 영면했다. 뉴스

영국 옥스퍼드대 한국 전통놀이 행사 개최

피트 리버스 박물관, 윗놀이·딱지치기 체험행사 기획 ... 윗판 암각화 등 윗놀이 기원 관련 연구자료 소개

영국 옥스퍼드대학 피트 리버스 박물관(Pitt Rivers Museum)이 지난 8월 25일 (목) 박물관 내 올드 라이브러리(Old Library)에서 윗놀이와 딱지치기 체험 행사를 개최하였다.

옥스퍼드대학이 운영하는 4개의 박물관 중 고고학-인류학 분야 박물관인 피트 리버스 박물관은 1884년 군인이자 고고학-인류학 유물 수집가인 Augustus Pitt Rivers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50만 여 점의 유물을 소장중이다.

이 박물관은 관람자들의 체험을 유도하는 “플레이(Play)” 프로젝트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의 인류학 유물을 전시하거나 체험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열린 사례로는 칠레 쇠가죽 재질 카드 놀이 전시, 복사뼈로 만들어진 알제리 지역 전통놀이 유물 전시, 옥스퍼드 폴란드 협회(Oxford Polish Association)과 공동으로 진행한 폴란드식 달걀 꾸미기 행사 등이 있었으며, 이번 8월에는 한국 전통놀이 행사가 기획된 것이다.

영국한국교육원, 주영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런던지사, 아시아나항공 런던지사 등의 협력 아래 개최된 본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윗놀이와 딱지 체험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소형, 중형, 대형 등 크기별 윗놀이 중 하나를 골라 체험할 수 있었고, 한지 및 한국 전통문양 색종이로 딱지를 직접 접고 딱지치기 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윗놀이의 기원으로 제시되는 윗판 암각화의 연구자료도 영어로 요약 번역되어 제공되는 등 참가자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그 유래를 이해하도록 행사의 목적이 기획되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 본 행사는 부모와 함께 참여한 유아 학교 학생들부터 60대 이상의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였다.



주최 측 추산으로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의 자원봉사자이자 옥스퍼드대학에서 박물관 인류학을 수학하고 있는 티파니 조나슨 씨(26, 옥스퍼드대학 세인트 캐서린 컬리지, 한국-노르웨이계 미국인)는 “수업과 연구를 위해 한 해 동안 지낸 피트 리버스 박물관에서 영국 아이들과 가족에게 저의 모국인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참여하여 매우 즐거웠습니다. 윗놀이와 딱지치기라는 즐거운 체험행사뿐만 아니라 윗놀이의 기원도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며 모국 문화 행사 참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본 행사 주최 측으로 참여한 한성원 씨(35, 옥스퍼드대학 생리-해부-유전학과)는 참가자들의 숫자가 적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다며 “윗놀이의 기원과 우리 민족의 천문 문화에 관한 연구자료들도 매우 흥미로웠고, 윗판 암각화 등의 우리나라 연구가 지속적으로 외국에 소개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공동 주최자인 메건 크리스트 씨(피트 리버스 박물관 유물수집-대중참여 기획관)도 “한국 전통놀

이의 문화적 인류학적 배경이 독특하여 유심히 살펴보았으며, 이번 행사가 성료됨을 근거로 앞으로도 우리 박물관에서 한국문화에 관한 연구를 더 발전시키고 관련 행사도 더 자주 기획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다른 공동 주최자인 스칼렛 그란트 씨(피트 리버스 박물관 가족학습-대중참여 기획관)는 “평소 한국의 전통놀이에 대하여 잘 몰랐지만, 이번에 4곳의 한국 기관 및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윗놀이와 딱지치기-치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면서 행사를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어린이부

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윗놀이와 딱지치기의 특별한 매력 같다.”라며 많은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어낸 데 대한 기쁜 마음을 전했다.

행사 참가자인 슈레야 샤프마 씨(22)는 “영화에서 보던 윗놀이와 딱지치기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는 데 처음부터 많이 기대했고, 실제로도 정말 재미 있었다”며, “오늘 배운 바를 잘 기억하여 나중에 저희 가족에게도 알려드릴 생각”이라는 소회를 이야기 하였다.

(사진 및 기사 제공 : 피트 리버스 박물관)

1991년 창간

www.kowekly.co.uk

뿌리깊은 나무처럼 성실하게 변함없는 오랜 친구처럼 든든하게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듯

코리안위클리 31년째 성실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른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코리안위클리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벗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믿을 수 있는 비즈니스 동반자 - 코리안위클리

코리안위클리



생활광고 안내

1회: £ 15
2회: £ 25
3회: £ 30
6회: £ 50
8회: £ 65
12회: £ 90
24회: £ 150

이메일로 광고내용, 게재 횟수, 연락처를 적어 보내 주시면 확인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koweekly@koweekly.co.uk



GREEN FARM
korean style rice cake dessert

☎ 07379 960 460
(주문은 새벽5시-낮12시)

**콩나물
각종 떡 전문**

43 Martin Way, Morden,
Surrey SM4 4AH

시나이 모터스

SYNAI MOTORS



- 정비 전문
- 도색 전문
- 보험·수리
- MOT 대행

0208 241 0836 / 07880 700 492
167 Surbiton Hill Park Berrylands KT5 8EJ

슈퍼맨 런던

당일배송 온라인 한인마트
낮 12시 이전 결제완료시 당일배송가능!
첫 주문시 배송비 무료

www.supermanlondon.com
☎ 07912 649953

런던 우체국 London Parcel Office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세관/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UK Top Tour

프리미엄 투어 / 의전 / 공항픽업 / 캡서비스
벤츠 V-Class / E-Class

전화 : 07879 405 139 카톡 : kingstonplus
(직원 모집 : 워홀 환영)

스마일캡

공항픽업 서비스, 간단한 학생 이사
친절히 모십니다

☎ 07961 778 296



범양 익스프레스

Pumex International
인틱 당일 배송 · 포장 · 픽업
일반 특송 / 구매 · 배송 대행

24시간 상담
☎ 07960 879 234

◆ 플루트 렛슨·음악이론 렛슨 ◆

Professional Teaching Specialist
전문가가 빠르고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학생들 그레이드·음악장학생·음악이론 전문.

☎ 0783 468 7828 뉴몰든 파운틴

인벤토리 청소전문 - 서울클리닝

10년 노하우 인벤토리 청소 전문
처음부터 인벤토리 체크까지
책임지며 훼손된 부분 수리가능

☎ 07947 299 669 / 07432 703 156

1991년 창간 성실한 동포신문


코리안위클리

역시 그 친구가 옳았어!

작은 광고 한 줄에도 옳고 정확한 내용을 실기 위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자세 때문에 가끔은 '너무 소심하다' 는 핀잔도 받습니다.
가끔은 '너무 꼼꼼하다' 고 귀찮아하시는 광고주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흐뭇해하십니다.
전달하고싶은 내용을 정확하게
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코리안위클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역시 그 친구가 옳았다' 는
그 말을 계속 듣기 위해서입니다.
koweekly.co.uk



수학 물리 과외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졸 20년경력
A level, GCSE, IB, AP, Pre-U, SAT
Further math, STEP, MAT, Olympiad, 경시대회준비
대학수학/통계, 한국수학

☎ 07958 677211

Total Clean 토탈클린 세탁

세탁·수선 전문
세탁 : 의류, 이불, 커튼 등
명품 의류 수선 전문
115 Kingston Rd, New Malden

☎ 020 8949 7999 (일번지 정육점 바로 옆)

클래식 기타아 / 피아노 / Music Theory

www.duoart.co.uk

ABRSM Grades 1 to 8, All Levels 환영
MA, BMus 음대 전공졸업, 교육경력 25년,
** 온라인 / 오프라인 수업 진행중

☎ 07894 237 044 / 020 8949 8852

미소하우스 (miso house) 하숙

뉴몰든역 3분거리의 고급 주택, 카드결제 가능,
출장 주재 연수, 집 구하기전 잠시, 최고 욕실룸,
넓은 가족실, 고속 인터넷, 세탁, 조 식 한정식,
www.misolondon.com
카톡 ID: misohouse

☎ 0782 333 6807 / 0208 288 9251

어디로 갈까 고민마세요,
정비의 으뜸

A3 MOTORZ MOT

에이쓰리 모터즈

£35
Free Retest
(Mon - Sunday)

툽업 / 타이밍벨트 / 오일교환 / 타이어 교환 · 펑크 / 전기문제

코리안 위클리는 본지나 관련된 웹사이트에 실린 광고주의 정체를 어느 정도 확인합니다. 그러나 광고주나 광고의 정확성,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서비스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 기타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지에 실린 광고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코리안 위클리는 광고주와 광고내용, 연락,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독자 분들이 본지에 실린 광고주와 광고 내용 연락이나 제품, 서비스 구입 혹은 계약 이전에 나름대로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note that any adverts contained in Korean Weekly does not imply a recommendation or endorsement or approval by Korean Weekly Newspaper of any advertising claims or of the advertiser, its product, or services. Korean Weekly reserves the right to accept or reject any advertisement submitted for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While Korean Weekly employs its best endeavours to confirm the identity of the advertisers, it does not attempt to investigate or verify claims made in advertisements appearing in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Korean Weekly disclaims any liability whatsoever in connection with advertising appearing in its newspaper and on its websites."

편안하고 아늑한 정 하우스

출장, 주재, 가족 여행, 집 구하기 전 임시거주 등
어떤 목적에도 적당한 게스트 하우스,
아늑한 리셉션, 초고속 인터넷, 세탁 서비스,
깔끔하고 맛갈스런 아침 저녁 제공, 카드결제 가능.
뉴몰든 역 10분, 집앞 버스 265번, 구 올리브 하우스.

☎ 07908 522 109 카톡 ID : junghouse5



기술자 **염관식**
· 20년 이상 경력 소유
· 한국 자동차정비 자격증 소지자
· 영국 자동차정비 자격증 소지자

22 Wellington Crescent, New Malden KT3 3NE
07540 142 017

